

■ 주요 뉴스: 연준 마인드 이사, 통화정책 과도하게 긴축적 뉴욕 연은 총재는 적절하다고 주장

- 미국 행정부, AI 산업 지원 위한 인력 제공.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상승
- 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팬데믹 이후 최저. 산업생산 및 부동산 투자도 부진
- 일본 4/4분기 대형 제조업체 업황판단지수, 4년래 최고. 금리인상 전망 뒷받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1월 고용보고서 경계감, AI 버블 우려 등이 영향

주가 하락[-0.2%],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11월 고용보고서 발표 전 AI 관련주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금융·소프트웨어·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본은행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엔화 강세 가능성 등에 기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그 동안의 가격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약보합 마감

※ 뉴욕 1M NDF 증가 1466.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68.7원, 0.16% 하락). 한국 CDS 하락

		12/15일	12/12일	전일대비			12/15일	12/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16.5	6,827.4	-0.16%	국채 금리 10y	미국	4.17%	4.18%	-1bp
	유럽	582.54	578.24	+0.74%		독일	2.85%	2.86%	-0bp
	중국	3,867.9	3,889.3	-0.55%		영국	4.50%	4.52%	-2bp
	일본	50,168	50,837	-1.31%	CDS 5y	한국	22bp	23bp	-1bp
	한국	4,090.6	4,167.2	-1.84%		중국	43bp	43bp	-0bp
	달러지수	98.30	98.40	-0.10%	위험 지표	EMBI+	-	268	-
환율	유로화	1.1753	1.1740	+0.11%		VIX	16.50	15.74	+4.83%
	엔화	155.23	155.81	+0.37%		WTI유	56.82	57.44	-1.08%
	위안화	7.0480	7.0550	+0.10%	원자재	구리	533.4	528.4	+0.96%
	원화	1,471.0	1,473.7	+0.18%		금	4,305.0	4,299.6	+0.1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마이런 이사, 통화정책 과도하게 긴축적. 뉴욕 연은 총재는 적절하다고 주장

- 마이런 이사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정상화되어 주거비 증가세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또한 최근의 고용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 역시 완화될 것으로 전망. 현재 물가는 높은 수준이지만 다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화정책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특히 과거 사례의 경우, 악화된 노동시장을 단기간 내에 되돌릴 수 없기에 중립적인 정책 기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금리인하가 적합하다고 설명
- 반면,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는 통화정책이 적절한 상황이라고 주장. 최근의 완화 결정으로 다소 제약적이었던 통화정책이 중립 수준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 12월 금리인하를 찬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언급 자제.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내년 1월 금리인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진단
-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내년 미국 경제 성장에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첨언. 아울러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근 가운데 일부는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해시 국가경제위원장의 의장 지명을 반대. 이들은 해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과도하게 가깝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행정부, AI 산업 지원 위한 인력 제공.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상승

- 트럼프 행정부는 AI 인프라 및 기술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1000여명으로 구성된 '미국 기술 인력단'을 출범시킬 방침. 이들은 향후 주요 기술업체들과 AI 등의 기술 프로젝트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책임질 예정
- 한편,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39를 기록, 전월(38) 대비 상승. 이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에 기인. 그러나 주택건설경기는 원자재 상승의 여파 등으로 여전히 저조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

■ 미국 트럼프,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의 정상들과 2일에 걸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협상을 종료.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우크라이나 평화가 가까워졌다고 발언.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언론은 유럽 정상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 창설을 제안했다고 보도

■ Barings, 내년 경제 '골디락스' 유지 전망. 유명 투자자 캐시 우드는 금 가격 경고

- Barings는 내년 글로벌 경제가 경기침체 없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는 '골디락스' 유지할 것으로 전망. Ark Investment의 캐시 우드 CEO는 최근 급등한 금 가격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하락 가능성 경고. 한편, Morgan Stanley는 11월 고용이 적절한 수준에서 부진하면 금리인하 기대를 높일 것으로 예상

■ 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팬데믹 이후 최저. 산업생산 및 부동산 투자도 부진

- 1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1.3% 늘어 전월(2.9%) 대비 증가세가 크게 약화. 특히 이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 11월 산업생산 역시 전년동월비 4.8% 늘어 전월(4.9%)에 비해 증가세 둔화. 아울러 1~11월 부동산 개발 및 주택 투자는 각각 전년동기비 15.9%, 15% 감소
- 이번 결과는 경기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데, 결과적으로 중국과 여타국들의 무역 및 투자 관련 긴장을 높일 우려(Barclays)

■ 일본 4/4분기 대형 제조업체 업황판단지수, 4년래 최고. 금리인상 전망 뒷받침

- 4/4분기 대형 제조업체의 업황판단지수가 15를 기록, 전기(14) 대비 상승했고, 이는 '21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 이번 결과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우려 완화, AI 투자 확대, 엔저에 따른 체감 경기 개선 등에 기인. 아울러 일본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내년 임금 인상 폭은 올해와 같이 높은 수준 나타낼 전망
- 시장에서는 위와 같은 기업의 양호한 경기 체감 및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지속 가능성 등이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6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및 10월 고용보고서, 10월 소매판매, 12월 S&P 글로벌 종합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AI 버블, 4개의 기준 적용 시 이미 상당 수준 진전되었을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e four 'O's that shape a bubble)

- AI 버블 여부 판단에서 일부 정성적인 면을 제외하면 평가 기준이 미비. 이에 다음 네 가지 기준 고려해볼 필요. 첫째, 고평가. AI 관련주의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미국 증시의 장기 밸류에이션은 역대 최고. 이는 심각한 거품 붕괴 경고일 소지. 둘째, 과잉소유. 미국 가계의 50%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기술주에 편중.
- 셋째, 과잉투자. 데이터 센터 등 기술 관련 투자는 미국 GDP의 6% 이상 수준. 그러나 기업의 AI 도입 속도 둔화 등으로 투자금 회수 어려울 우려. 넷째, 과도한 부채. 일부 빅테크를 제외하면 기업들은 대체로 투자 대비 수익이 부진. 상기 항목들을 고려할 경우 AI 버블은 오히려 이미 상당 수준 진전된 것으로 판단 가능

■ 높은 수준의 장기금리, 연준의 금리인하 불구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우려 - 블룸버그

(The bond market will not be fooled)

- 내년 차기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점과, 단기금리 하락이 장기금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 장기금리는 미래의 단기금리 전망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와 위험 프리미엄도 반영하기 때문
-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고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의회의 의지가 낮은 현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더 높은 프리미엄 요구 등으로 높은 수준의 장기금리가 점차 고착화. 이러한 여건에서는 모기지 및 국가부채 부담 증가, 기업 신용위험 상승 등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적완화 재개, 금융억압 같은 정책 유인이 커질 수 있으나, 채권가격의 인위적 왜곡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소지

■ 유럽의 저성장, 역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 Financial Times

(Low growth is now Europe's biggest financial-stability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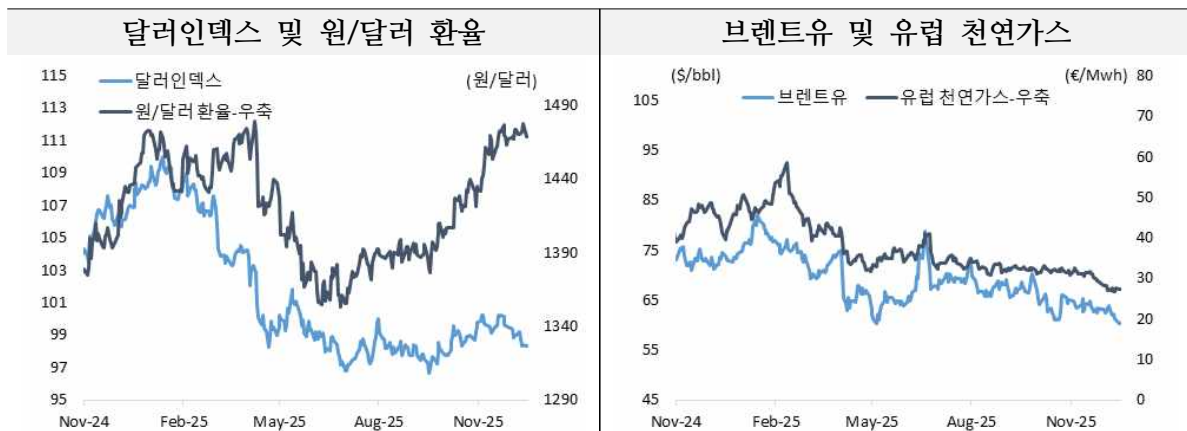
- EU 재무장관들은 역내 금융규제 간소화 및 효율성 개선 등을 촉구했고, 이는 역내 금융규제가 과도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임을 인정하다는 의미. 동시에 역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은 은행이 아니라 바로 저성장 자체임을 시사. 금융기관의 안정과 번영, 전략적 자율성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 실제로 강력한 경제성장과 유동성 공급을 위한 효과적 금융규제는 서로 긴밀히 연결. 유럽의 대기업은 은행대출에 자금조달의 80%를 의존하여 관련 문제는 더욱 심각. 이에 ▲중복규제 완화 ▲감독기관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등이 요구

- **영란은행, ECB의 금리동결 전망 속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인하 선택할 가능성 - WSI**
(BOE Expected to Cut as ECB Settles Into Its Good Place)
 - 이번 주 유럽 5개국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 특히 ECB는 경기침체 회피가 가능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하는 ‘양호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며, 6월 이후 지속된 금리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스웨덴, 체코, 노르웨이의 중앙은행들 역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
 - 하지만, 영국의 경우 다소 상이. 유가 및 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예산안 통과로 인한 디스인플레이션 효과 기대 등으로 물가 전망치가 하향 조정. 이에 영란은행의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게 증가.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투자자들 역시 영란은행이 ECB처럼 금리동결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
 - 시장에서는 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금리 변동 주기가 막바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 다만, 일부에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유럽 내 인플레이션 추가 하락 우려가 부각될 경우 기존 정책 기조의 변경 역시 가능할 것으로 관측
- **미국 11월 고용보고서 및 소비자물가, 지연 발표로 신뢰도는 낮을 우려 - Financial Times**
(Investors will have to wait until new year for clear data on US economy)
- **연준 내 공개적 이견, 높은 경제 불확실성 감안하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 - 블룸버그**
(Federal Reserve's dissents serve a useful purpose)
-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 관련 역효과 등으로 부정적 평가 크게 증가 - WSI**
(Why Everyone Got Trump's Tariffs Wrong)
- **글로벌 경제, 주요국 전력 부족이 자본 지출 감소 및 성장 저해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Electricity Is Now Holding Back Growth Across the Global Economy)
- **독일의 對中 경제관계 재정립·보호주의 강화 움직임, 불공정 경쟁구조 심화에 기인 - WSI**
(Why Germany Wants a Divorce With China)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